“높아진 불교 문턱, 문화로 낮출 것”

안국선원교육관, 제1회 천하태평 공연

6월 27~28일, 문화 기획 첫 공연
김종걸 기타리스트 초청 무대
400여 선원 신도 및 불자 동참
“참된 문화쉼터로 역할 할 것”



안국선원교육관이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과 함께하는 천하태평한 공연’을 6월 27~28일 안국선원교육관 1층 원형홀에서 열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기타 선율로 울려 퍼지자 20대 청년부터 80대까지 모든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언어도, 종교도, 세계관도 걸릴 일이 없었다. 음악으로 다름과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가 됐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주는 힘이다.

안국선원교육관(주지 석산)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과 함께하는 천하태평한 공연’을 6월 27~28일 안국선원교육관 1층 원형홀에서 열었다. 이번 공연은 안국선원교육관이 ‘천하태평’을 타이틀로 실시하는 문화기획의 첫 번째 공연이다. ‘온 세상이 태평하고 근심 걱정 없이 느긋하여 편안하다’는 뜻을 담았다. 세상에 쉼과 힐링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다.

첫 번째 기획인 만큼 안국선원 신도들이 특별초대 손님이 됐다. 이틀 동안 안국선원 신도와 소식을 들은 일반불자 400여명이 찾았다. 석산 스님은 “안국선원교육관은 신도님들의 십시일반으로 지어졌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선물하는 심정으로 첫 번째 문화 기획을 열었다”고 말했다.

첫 문화 공연 초청가수는 김종걸 기타리스트였다. 김종걸 씨는 핑거스타일 주법으로 기타를 연주한다. 핑거스타일은 어쿠스틱 기타 한대만으로 무한한 음악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클래식, 팝, 뉴에이지,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표현하는 주법이다.

김종걸 씨는 현재 야마하 코리아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부산예술대학교 외래 교수다. 일본 오사카 어쿠스틱 기타 라이브 페스티벌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밴드 ‘국카스텐’과 ‘10cm’의 단독공연 게스트로 참여한 바 있다. 김종걸 씨는 “어릴 때부터 불자인 어머님과 함께 절에 다녔다. 그동안 절에서 연주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불자로서 이런 자리가 더 뜻 깊다”고 말했다.

김종걸 씨는 자작곡과 귀에 익은 음악을 편곡해 신선함과 편안함을 함께 선사했다. 자작곡 ‘Mr, Bean’은 영화 속 미스터 빈을 표현한 곡으로, 익살스러움 가운데 통통 튀는 재치를 절묘하게 묘사했다.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는 그의 손을 통해 새롭게 편곡됐다. 루시드 폴의 슬픈 감수성은 살리되 기타 선율로 섬세함을 더했다.

곡을 들은 불자들은 함께 웃고 슬퍼하며 호응했다. 전소영(45 · 해운대) 씨는 “지난번 동의대 내 안국사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다. 그 때도 좋아서 연락받고 왔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며 “특히 교육관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 더 좋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례(68 · 대신동) 씨는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을 보게 되니 더 귀하고 좋다. 한 달 전에 알게 됐는데 시간을 빼고 왔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문화 기획으로 많은 분들이 쉼터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포부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하태평 문화기획은 문화로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할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약할 안국선원교육관의 첫 번째 시도다. 이번 천하태평 문화기획은 매달 특별 공연 및 강연으로 열리며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일정은 아직 조정 중이며 일반 법률 및 영화, 사회문제 등 주제는 다양할 것이라 전했다.

문화포교를 위해 2008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건립된 안국선원은 안으로는 간화선을 기치로 심도 깊은 수행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문화를 가교로 삼아 여유와 쉼을 제공할 것을 강조해왔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전시실과 영화관, 메인홀, 법당 및 옥상정원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이다. 부산시 건축상 은상을 받아 건축미도 자랑한다.

앞으로 안국선원교육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축구단, 합창단을 비롯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다도수업, 수행 기초수업,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 6월 1일 새롭게 주지로 임명된 석산 스님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참된 문화 쉼터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불교의 기본은 수행이지만 젊은이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문화는 감동을 준다. 감동으로 얻는 가르침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생전예수재 회향식과 미륵십선계 포살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경내를 돌며 업장 소멸과 무량 공덕을 서원하고 있다.

“허물 참회하고 무량 공덕을…”

선운사, 예수재 회향 · 미륵십선계 포살 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6월 24일 지장보궁에서 생전예수재 회향 및 미륵십선계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5월 7일 입재이후 49일 동안 봉행해온 선운사 생전예수재 기도를 회향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각 국장스님들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한 생전예수재는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생전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자는 의미를 담아 봉행됐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회향법문을 통해 “우리나라 3대 지장성지인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에 동참하게 된 것은 불자로서 흔치않은 행운이라 할 수 있다”며 “49일간 걸친 기도를 통해 선업을 쌓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오후 의식에서는 금은전 이운과 미륵십선계 포살법회가 봉행됐다. 전계사로 등단한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은 생전예수재의 공덕과 미륵십선계의 계목을 상세히 설하고 진실하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범여 스님은 “계를 지니는 것은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사다리이며 고해를 건너 열반언덕에 이르는 배와 같다. 십선계의 계목과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깊이 수지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군산에서 왔다는 보문심 불자는 “평소 선운사 지장보궁 기도에 동참해 왔다”며 “특별히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에 동참하면서 지난 허물을 참회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북 평화통일하려면 ‘중년부부’ 자세 취해야”

김근식 교수, 민추본 통일강좌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부산지역본부는 6월 26일 부산불교회관에서 ‘변화된 환경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이란 주제로 통일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상황을 중년부부에 비유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중년 부부가 냉담하고 다툼은 있어도 폭력은 결코 써서는 안 된다”며 “서로 존중하는 부부의 모습처럼 사상적 체제를 존중하는 남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부부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때 황혼 이혼이 없다. 이처럼 남북은 서로 통일 해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나눔의 ‘플리마켓’… “함께 행복해져요”

(사)행복한마을 9주년 및 행복한절 11주년 맞아

거창에 위치한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사)행복한마을이 9주년을 맞는다. 행복한마을의 수행 중심지인 행복한절은 11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며 행복한마을은 나눔을 위한 ‘행복한 플리 마켓’을 행복한절 극락보전에서 연다. 행사는 7월 9일 오전 9시 1부 개관기념법회로 시작하며, 오후 1시에는 2부 무대공연 및 플리마켓으로 열린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주민들은 수익금 일부를 거창청소년예술단 나눔 자선 행사에 기부한다. 거창청소년예술단 나눔 자선 행사는 한국과 캄보디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며 7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국립극장(짜따목)에서 열린다. 공연은 천원의 기적이란 모금 활동을 위한 것이다. 캄보디아 인구 70% 이상이 하루에 한끼로 살아간다는 현실을 듣고 현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플리마켓과 함께 여는 공연에는 기타리스트 박경호가 이끄는 어쿠스틱기타 듀오 2km가 참여한다. 2km는 가수 김연우 · 김범수 · 이은미 등 유명 가수의 세션으로 활동했으며, TV프로그램 윤도현의 러브레터 · 김정은의 초콜릿 등에서 하우스밴드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다.

이밖에 거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및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의 토크 및 프리허그 행사, 참가자들의 장기자랑 등도 펼쳐진다. 이날 부스에는 각종 전시회 및 공예작품들과 건강한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린다.

(사)행복한마을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만클릭 기부활동, 저소득 청소년 노인 반찬 지원 사업 등 행복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은 지난 11년 동안 20차례 불교대학을 열어 수계자 450명을 배출하고 20여명의 포교사를 양성했다. 아울러 부산나랑명상센터를 운영하고 공동체마을 및 공동 육아를 통한 포교활동에 전념 중이다. 하성미 기자



대구 화성사 일대 주택 건립 수행환경 훼손 우려감 커져

대구 북구 화성사(주지 종묵) 바로 앞 대지에 18층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행환경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 추진(공사기간 2016.12~2019.3월 예정)에 따른 피해 우려다.

화성사 주지 종묵 스님은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지상 6층까지 건설될 주차장으로 인해 소음 및 분진 피해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주변 상가건물들은 모두 10층 이하인데, 이 신축주택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18층 높이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상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지어진다.

종묵 스님은 “현재도 화성사 일대 상황은 좋지 못하다. 인근 대형병원과 기존 아파트 진출입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심하다. 새로 400세대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최소한의 수행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화성사의 피해는 수행환경 침해 뿐 아니다. 지난 연말 정부시책에 따라 1억2,000여만 원을 투자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도 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지상 주차장 설치로 인해 화성사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들도 소음 및 매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말사 화성사의 진정에 따라 추진 건립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종길 종무실장은 공사가 강행될 경우 동화사 신도회 차원의 항의 운동을 감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LH공사는 현재 불교계 반발에 따라 착공을 연기한 상태다. LH공사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해 불교계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 조계종 원로의장
현 파계사 조실 도원 큰스님 초청법회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3번)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엄장엄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을!

남화사 화엄회상 100일 화엄경 수행법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입제안내 : 2017년 7월 14일 (윤,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 하루세번 :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천수경, 능엄신주, 약찬게, 화엄경수행법)
■ 강 설 : 화엄경 제1권 세주묘음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보살계 수계산림 : 2017년 10월 21일 (음,9력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제1회 화엄화상 - 조계종 전계대화상 석성수 큰스님 초청 보살계 산림대법회

천년의 미소 남화사는 도심속 산중 사찰로 숙식도 가능하며 1박은 2만원, 1개월은 50만원이며 단, 강의만 듣고자 하는분은 월 5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 1등은 1만원, 10인이상 동참자는 강의료가 무료입니다. (남화사 유튜브 화엄경수행법)

경북 구미시 선기로3길 38-37 (남통동 70번지) 금오산 남화사
전화 : ☎ 054)452-6568 / 010-3540-6588



연인원 9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윤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연내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